



혁신도시 전경.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에도, 나주시 등은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장담하기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산넘어 산'

나주시 '4대 과제' 해법찾기 깊어가는 고민

나주시가 혁신도시 현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혁신도시 미래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최우선의 관심사이지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서다.

◇“약취, 언제 사라져요?”=나주시는 지난해 혁신도시 내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가 본격화되면서 약취 관련 부서가 비상 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약취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호혜원 양돈농가의 축산업 폐업(2015년 12월) 이후에도 “약취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폭증하면서다.

LH아파트 인근에서 제기됐던 약취 민원의 경우 지난 2015년 14건에 불과했지만 주민들 입주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49건으로 폭증했다. 우미린 아파트 인근에서도 2015년 입주 시기와 맞물려 쏟아진 민원이 42건에 달했고 지난해도 34건이 접수됐다.

나주시는 호혜원이 지난 2015년 12월 말 축산농가 폐업보상이 마무리되면서 축산업 폐업이 이뤄졌음에도 혁신도시 주민들의 약취 민원이 감소했을 뿐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 때문에 환경모니터링 요원 4명을 채용, 2인 1조로 나눠 지난 6월부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약취 발생사업장을 돌며 모니터링토록 했다. 사업장 주변을 순회하면서 야적·방치된 퇴비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벌이고 있다. 또 1억5000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약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기로 했고 혁신도시 반경 3km 이내 42개 사업장의 약취 발생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약취관리센터에 기술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 1 약취 고동 여전 호혜원 축산업 폐업에도 지난해 민원 149건 폭증
- 3 고교 경쟁력 강화 일반고 불신에 고교도 부족 광주공동지원제 잇단 요구

- 2 한전공대 유치 학교 설립 부지 초미의 관심 광주 유치 활동에 심기 불편
- 4 의료 인프라 부족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데 종합병원도 없어 불만 폭증

교육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고교공동지원제가 진행될 경우 인재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고교 공동지원제가 이뤄질 지 회의적이다.

나주시가 추진해왔던 혁신도시 내 명문고 설립도 부영을 비롯, 몇 군데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섰다. 무산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 정부의 자사고 설립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종합병원도 없잖아요?”=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고민거리다. 1만2452명(2015년)이던 혁신도시 내 인구가 2만6287명(2017년 4월)로 급증했지만 변변한 종합병원도 없어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1%는 정주여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꼽았다. 특히 미흡한 원인으로 의료보건의료(27.4%)를 지적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병원 부지(1만4819㎡)의 경우 매입이 완료됐지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 해당 사업자들은 착공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나주시는 조속한 병원 건립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나주시는 이외 문화·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혁신도시의 취약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언제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시=손영철기자 yacson@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약취발생 현황 분석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10월까지 13개 축산 농가 등에 약취저감제를 보급기로 했다.

나주시는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지역 축산농가 및 약취 발생 사업장 1606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등 약취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약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 나주로 오나요?”=한전공대 건립 문제는 최근 나주시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한전공대'(KEPCO TECH) 설립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학교 설립 부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다.

나주시는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시존 2)'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반경 5km 이내가 최적지'라는 점 등을 들며 나주시의 설립 타당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에너지를활용연구원 원장은 이날 “대학·연구센터를 집적화하고 벤

처·산단 등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전공대가 혁신도시 반경 5km 이내에 설립되는 게 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광주 남구지역 의원과 전 광주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전공대대학남구 유치위원회가 꾸려지고 유치활동에 나섰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칫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감지된다. 나주시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한전공대 조속하게 입지를 선정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우리 자녀, 학교 어디로?”=혁신도시 입주주민들은 나주시역 고교 경쟁력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역 일반고 경쟁력에 대한 불신과 혁신도시 내 고교 부족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제기되고 있는 입주주민들 중심으로 제기되는 요구사항이 광주로 고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나주시·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반영, 광주·나주시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자칫 지역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팽배하다. 당장, 전남도

나주사랑 상품권 10월까지 5% 할인 판매

나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나주사랑 상품권을 5% 할인해 판매한다.

시는 할인행사를 통해 잇따른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업체 증가, 시민들의 소비 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상품권 인지도 제고, 유통 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사랑 상품권은 관내 농협,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다.

할인행사 기간 가맹점 1463곳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이용할 때 액면가의 총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는 나주사랑 상품권을 애용,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준 시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사랑 상품권은 관내 농협, 광주

이동시장실 불편 해결사 역할 '톡톡'



“더 적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어겠습니다.”

나주시 이동시장실이 적극적인 불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개월 전 시동을 걸었던 이동시장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빛가람전망대에서 이동시장실을 열고 시민의견을 묻소 청취한 뒤 현장에서 민원 등을 풀어나가는 일을 지휘했다.

이동시장실이 3차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세밀해졌고 범위가 확대됐다. 주민들은 이날 빛가람동 내 아파트 주소 변경, 999번 버스노선 통폐합 불편사항, 하절기 약취, 요양병원 설립 재검토,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다.

강 시장은 약취 문제와 관련, “약취 취약지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 약취 발생원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아울러 LH1단지, 부영1단지아파트 경리당을 방문해 에어컨, 냉장고 등 냉방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나주시=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참여 청년 21일까지 모집

나주시가 청년 권익증진에 팔을 걷었다.

나주시는 청년 정책 발굴과 논의의 장인 정책협의체에 참여할 청년들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청년(만19~39세)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의 토대가 될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5년마다 단체장이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주요 사항, 참여확대 등을 명시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청년 정책을 심의·의결할 기구로 20명 이내의 청년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둘 것을 명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협의체 위원으로 ▲청년능력·교육개발 ▲일자리 사업 등 고용확대 ▲농업·농촌활동지원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10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청년정책협의체는 시와 지역 청년들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점이자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행정에 전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시=손영철기자 yacson@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십시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